

제주행 쾌속 여객선 취항 한달…장흥 경제효과 따져보니

거쳐만 가는 관광객…제주만 특수

특산물 판매 등 기대 못미쳐…체류 프로그램 시급

장흥 노령항~제주성산포를 오가는 쾌속 여객선 '오렌지호' 취항으로 광주·전남과 제주도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오렌지호 취항 이후 장흥과 제주간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일일 평균 1900여명·차량 240여대에 달해 제주도내 대부분의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려 관광지와 골프장 래박객들이 몰려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 가운데 성산포항 특산품 코너에 제주도산 은갈치·간고등어·감귤 등

의 특산물 판매가 예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제주지역 경제계는 파악하고 있다.

반면 장흥지역은 아직까지 일부 희진지역 속박업소와 음식점들 제외하고는 한우·표고버섯·키조개 등의 특산물 판매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장흥~제주도간 이용객 대부분이 제주도 관광 목적을 두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오렌지호로 당일 여행도 가능하다는 쾌속 여객선의 운항 여건상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장흥~제주간 운항체계가 광주 터미널에서 장흥 노령항까지 셔틀 버스와 직항노선인 고속버스 운행과 오렌지호의 운항이 제주도를 가기 위한 시간대로 맞춰진데다 또한 제주도 일정이 끝나면 장흥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귀경하는 실정이다.

김이문 장흥군 지역경제 마케팅과 장은 "남도 음식문화가 전국에서 가장 자랑거리라는 점에 비추어 머지 않아 장흥지역이 제주도는 물론 전국 어느 지역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 8시 10분) 운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장흥을 거쳐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체류하는 곳으로 바글다 차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장흥 한우와 키조개·표고버섯 등 특산물 판매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이문 장흥군 지역경제 마케팅과 장은 "남도 음식문화가 전국에서 가장 자랑거리라는 점에 비추어 머지 않아 장흥지역이 제주도는 물론 전국 어느 지역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나주지역 농경지 361ha 리모델링

영산강 준설토 활용 농지 높여 침수피해 예방

나주지역 농경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진행돼 농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356억원을 들여 ▲동강면 옥정지구 71.43㏊ ▲영산동 관정지구(영산동·관정동·용산동) 47㏊ ▲이창동 이창지구 36.2㏊ ▲금천면 고동지구(영산동·고동리·신천리 일원) 207.2㏊ 등 4개 지구 361.83㏊ 농경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하천에서 파낸 준설토를 활용해 농지를 하천보다 평균 1.4~1.84m 높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채소 등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이 가능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사를 짓지 않는 2년간에 걸쳐 실제 소득을 보상하며, 하천부지 흙을 채운 후 원래의 흙으로 표토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항일의병 유적지 '쌍산의소'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화순군에 있는 항일의 병 유적인 쌍산의소(雙山義所·사적 485호) 주변 3만㎡를 최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쌍산의소는 1900년대초 구한말 의병들이 일제에 대항해 전투 준비를 하던 장소로, 호남의병과 한말 의병 사연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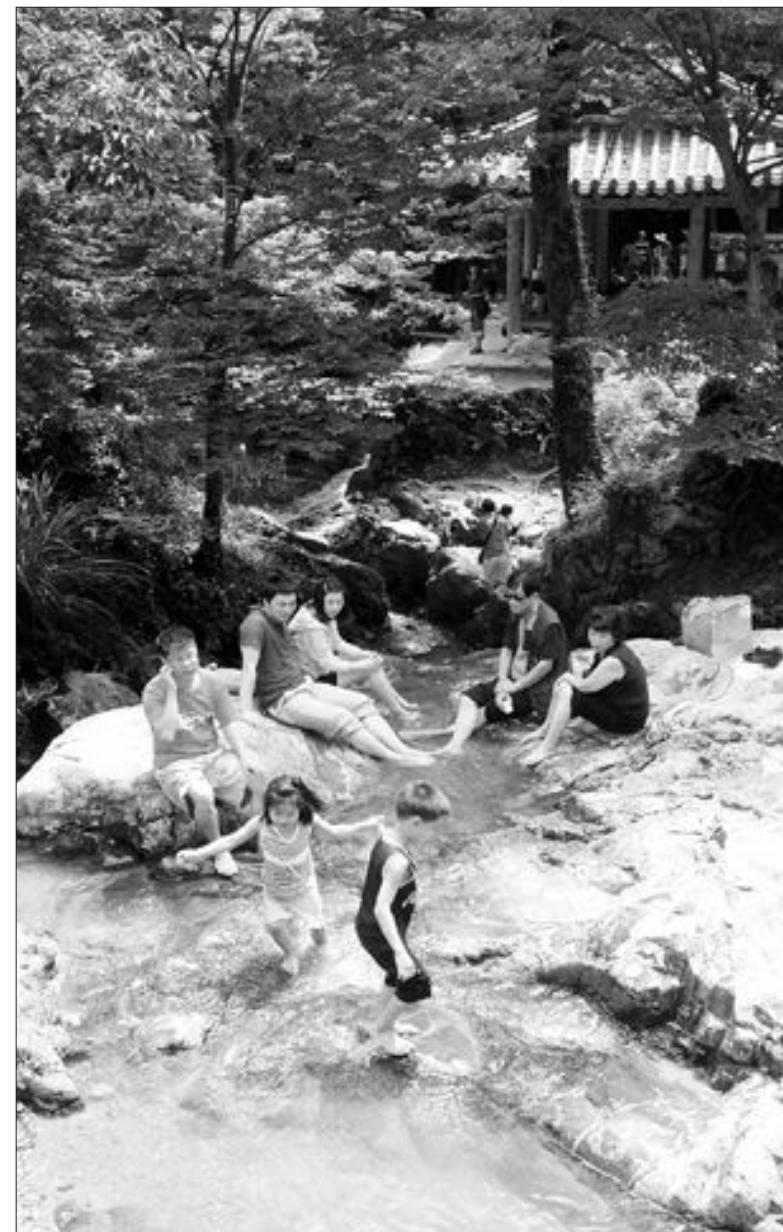
이 유적은 지난 2007년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초 의병 모의 장소였던 호남창의소 본부 기록터

와 무기·탄약을 공급한 무기제작소, 유황 저장고인 유황굴, 방어 시설인 의병성, 막사터, 훈련장 등을 중심으로 8만550㎡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이 주택·건축 등으로 훼손됨에 따라 주변 2만9천911㎡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번 추가지정은 앞으로 한달 간의 예고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소쇄원의 여름

2일 담양군 남면 소쇄원(瀟灑園)을 찾은 가족들이 광풍기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다. 담양 소쇄원은 조선시대 민간정원의 원형을 간직한 곳으로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돼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 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장성 삼서면 계획관리지역 2,300평

(공장, 물류센터, 창고) 적합 4차선 도로접, m당 45,374원

- 구함 : 하남공단 대지 500, 1000평 / 건평300, 500평

- 구함 :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 공장 : 하남공단·평동공단·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삼업지역토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율도	통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임무	800만원
동산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주산포	(15,300평)	조겸	35만원
동원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첨단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립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100억원
첨단지구	4억	1700만원	20억원

맞출주의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 383-5221 원 011-809-5221
(상무지구 아버들 김자당 1층)

피서지 농특산품 잘 팔리네

화순군 금호리조트 직거래 장터

불미나리·인진쑥즙 등 큰 인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화순군이 피서지 인근에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유통회사·복면사무소·동복농협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화순 금호리조트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개장 첫날에는 준비한 물량이 동일 날 정도로 팔렸으며, 불미나리 인진쑥즙 시식코너는 장사진을 이뤘다.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품목은 ▲능주 복숭아 ▲어서 뽕잎차 ▲사령기정떡 ▲청풍 뇌자자차 ▲도곡 파프리카·방울토마토 등이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오는 15일까지 휴가철 성수기



동안 운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휴가 피서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산품 판매장을 마련,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며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장흥 정남진 해안 일주도로 내년 완공

남해안 관광벨트…회진~용산 12.54km 93% 공정률

내년도에 장흥 정남진 해안 관광일주도로가 완공된다.

장흥군은 1998년도 제3차(낙후지 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며 회진~용산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향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천관산 진입도로 개설 등 5건에 192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진~용산간 도로개설 ▲회진항 종합개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3건의 사업에 1109억 원이 투입된다.

세 얼굴

"군민에 대한 무한 봉사펼치겠다"

노두근 강진군 부군수



"강진군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노두근(57) 강진부군수는 "공직자는 단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인 목민관의 자세